

▲중국(홍콩)

“동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홍콩은 국제적인 무역도시이자 관광도시이다. 서울의 약 1.8배의 면적에 6백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며 중국인들이 많아 사회,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 고유의 관습이 잘 지켜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음력설을 춘절이라고 부르며 음력 정월 15일까지 축제기간으로 여긴다. 음력 초하루날에는 조상신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 우리에게도 구정(음력설)은 일년 중 큰 명절이지만 홍콩, 중국 본토, 대만, 싱가포르 등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흠이졌던 가족이 모처럼 다시 만나고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먹는 뜻깊은 날이다.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음력설을 선호하므로 구정이 다가오면 갖가지 행사를 벌인다. 홍콩 시민들은 구정 전 시내에서 마련된 대규모의 꽃 전시회를 구경한다. 이곳에서 각양각색의 꽃을 바라보며 꽃내음을 즐기고 새해의 소망을 기원한다. 2일간의 다채로운 색상과 향긋한 향으로 장식된 화훼쇼가 끝나면 본격적인 구정 축제가 벌어진다.

새해를 맞이하여 멀리 있는 가족들이 설날 전야에 한 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거나 정성스레 차린 음식을 함께 나누며 밤을 지새운다. 옛날에는 1백 개의 동전을 빨간 고무줄로 묶어 좋은 말과 함께 건네주기도 했다. 또 라이썸 라는 빨간 복주머니에 뽀뽀한 새돈과 동전을 감아 아이들과 친구들에게 건네주었다.

세계의 신년 모습

▼ 중국에선 구정을 중요시 한다. 홍콩 같은 곳에선 성대하게 거리축제가 열린다.

글·사진 | 허용선 건강칼럼리스트



새해 아침에는 조상께 차례를 지낸다. 5대까지의 조상을 모시는 홍콩 사람들은 2월 16일까지 조상의 혼이 집에 머무른다고 믿고 있어서 음식을 그 때까지 그대로 차려 놓는다. 차례상에는 다섯 가지의 요리와 포도 주다섯 잔, 중국 전통차 다섯 잔씩을 놓고 10벌의 젓가락과 조상님들이 축재와 성찬날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달력을 올린다. 홍콩 사람들은 새해 인사로 '쿵헤이 팻초이'라는 말을 주고 받는다. 이 말은 '한 해의 성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라는 의미로 직장동료나 가까운 친지끼리 주고 받는 인사다.

▶일본

일본인들의 신년 맞이는 언제나 신사나 사찰을 찾는

것으로 시작된다. 전통복 등을 곱게 차려입고 가족 단위로 나서는 '하즈모테'로 불리는 이 새해 첫 행사를 통해 한 해의 안녕과 축복을 빈다. 일본의 이러한 새해 풍경은 해마다 변함이 없는 것은 생활 속에 뿌라내린 오랜 전통이기 때문이다. 새해의 중요한 연례 행사를 앞두고 전국의 신사나 사찰에서는 경내 안팎을 깨끗이 단장하고 참배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새해를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 위한 인파가 12월 그믐달 저녁부터 대거 몰려든다. 철도와 버스 등을 담당하는 교통당국에서도 참배객들의 왕래가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본인들의 조용한 새해맞이와는 달리 백화점과 호텔, 관광지 등에서는 특수를 겨냥해 손님들을 끌기 위

▼ 일본인들은 새해 초 이튿날 온천장을 찾아 심신을 깨끗이 한다. 아키타현 뉴토 온천장.



▼ 일본에선 연초 잉어 모습을 한 종이연을 축복을 기원하며 매달아 놓는다.



▶ 중국사람들은 예로부터 붉은 색을 좋아하여 거리 장식을 붉게 칠하는 경우가 많다.



한 각종 행사들을 펼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인다. 백화점과 슈퍼마켓 등 상가에서는 일본인들의 세시 풍속에 하나인 '오세보(연말에 주고받는 선물)'로 단단히 한 몫을 잡기 위해 노력한다.

▲스위스

만년설과 빙하가 뒤덮인 장엄한 산들이 연이어 있는 스위스를 “유럽의 공원”이라고 부른다. 지금 스위스는 잘 사는 나라이지만 과거에는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시절도 있었다. 크로이세 축제는 이러한 어려운 시절을 회상하는 독특한 축제이다.

크로이세(사당페) 축제는 스위스 산간 마을인 우르

음료수를 대접한다. 크로이세 대표가 “금년에도 덕내에 행복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다음 집으로 이동한다. 이때 집주인은 사라지는 맨마지막 크로이세에게 사례금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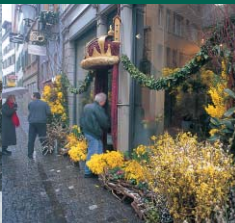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아름다운 왈츠와 함께 새해의 문을 여는 도시로도 유명하다. 매년 12월 31일 자정, 성 슈테판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신호로 전국의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일제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 나와 새해가 시작됐음을 알리기 때문이다. 새해 첫날에는 ‘비엔나 필 하모니’의

▼ 스위스 - 정월 초 과거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하는 크로이세 축제를 벌인다.

▼ 스위스 - 새해를 맞아 화려하게 거리 장식을 한 스위스 위리히의 집들.

▼ 오스트리아 - 수도인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성대한 신년음악회 모습.



나슈에서 해마다 1월에 열린다. 음력 12월 31일, 즉 선달 그믐부터 정월 대보름을 앞둔 1월 13일까지 우르나슈 계곡에선 흥겨운 축제의 놀이마당이 펼쳐진다. 황금빛 따스한 햇살이 계곡에 쏟아지는 이른 아침 요란한 방울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난다. 산 위에 사는 크로이세들이 찾아왔기 때문으로 크로이세들은 집앞에서 종을 울린 후 가족들이 모두 나오면 아름다운 화음으로 악기를 연주한다. 낭만한 종들의 합주가 끝나면 여섯 명의 크로이세들은 둥그렇게 둘러 서서 요들송을 부른다. 이 고장 특유의 노래말이 없는 요들송이며, 마을 사람들은 크로이세들에게 빨대가 꼽힌

신년 음악회가 역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으로 서곡을 장식한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은 그가 궁정무도회의 지휘자로 있을 무렵인 1867년에 만든 곡이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이웃 나라인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나라 전체가 온통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이러한 침체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해 당시 ‘비엔나 남성합창협회’의 지휘자였던 헤르베이 시트라우스에게 작곡을 의뢰해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이다. 🎵